

##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金珠愛·許貞蘭\*

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진주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강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Expressed in Costume

Ju-Ae Kim and Jung-Ran He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in-Ju Junior Colleg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Chin-Ju Junior College\*

#### 目次

Abstract	1. 역사성
I. 서론	2. 다원성
II.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3. 절충성
III.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	V. 결론
IV.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d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nd dealt with how they are expressed in costume.

Major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re Historicism, Pluralism, and Eclecticism and these are reflected in the costume.

1. Historicism of Post-Modernism is a trend recreate artistic symbolism which Modernism lacked in reference to historical factors of the past. It has been as a trend of restoration and an ornamental trend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historicism in that it restored historical ornaments.
2. Pluralism of Post-Modernism means an open-hearted attitude toward everything. In costume, it has been expressed as a trend of mixed fashion style such as ecology, street fashion and futurism, collapse and mix of genres, divesrity of materials and emphasis on texture couosed by assemblage, change of the use to escape from the conventional system and avant-garde.
3. Eclecticism of Post-Modernism is expressed as a blended fashion style based on the principal of de-dualism. It has several trends ; exotic trend by mixing both oriental and western

culters, androgyny which is a mixed image of man and woman, and a trend to use many kinds of materials together influenced by collage which is an eclectic mode.

## I. 서론

복식은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창조의 소산으로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포함한 정신의 근원적인 의식이 표명된 의적 조형물이다.<sup>1)</sup> 복식은 환경의 흐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문화의 단면을 나타내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고찰할 때 더욱 가치 있다고 하겠다.

20세기에 들어와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과학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기계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더니즘(modernism)을 하나의 양식으로 뚜렷하게 정착시켰다. 20세기 전반부를 풍미한 시대사조인 모더니즘은 복식분야에서 획일성, 동시성, 통일성의 특징을 나타내며,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보편적인 스타일의 현대복식을 성립시켰다.

합리성과 기능적 논리를 철저히 존중하는 모더니즘은 산업화와 함께 지속되어 왔으나, 정보화 시대·후기 산업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는 탈 획일화, 탈규격화, 개성추구의 경향 등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내포하는 20세기 후반의 방대한 지적, 문화적 움직임을 바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건축, 미술, 음악 등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변화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복식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위기의식, 복잡한 상황들이 다양한 조류와 경향으로 현대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시대사조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과 개념 및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복식 중 특히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본질을 규명해 봄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와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복식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하며, 나아가 복잡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복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관련 논문과 서적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고, 복식과 관련된 실증적 분석은 1990년 이후의 패션잡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자료로 하여 포스트모던 경향의 특성과 그 표현 양식을 고찰하였다.

## II.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포스트모더니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페데리코 드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1934년 출판된 그의 저서 『스페인과 남아메리카 시선집(Antologia de la poesia espanola e hispanoamericana)』(1882~1932)에서 포스트모데르니즘(postmodernismo)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더드리 피츠(Dudley Fitts)가 1942년 그의 『현대 라틴-아메리카 시선집(Anthology of contemporary Latin-American Poetry)』에서 다시 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더니즘 내부에서부터 나타난 작은 반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59년과 1960년에 어빙하우(Irving Howe)와 해리 레빈(Harry Levin)은 문학비평 영역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대한 모더니스트 운동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sup>3)</sup>,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보다

1) 주명희,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1992, p. 123.

2)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1992, p. 27.

3) Ihab Hassan, 정정호 번역, 포스트모더니즘, 종로서적, 1985, pp. 240-241.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와 이합 하산(Ihab Hassan)이 포스트모던 예술을 보다 광범위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 시작되어<sup>4)</sup>, 1970년대 이후에는 문학, 건축, 무용, 회화,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은 우선 정치적 면에서 볼 때 월남전으로 상징되는 동서의 냉전체제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소수 민족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약소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그동안 행사해 온 권위와 권력을 제한하는 여러 정치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우 1968년도 5월에 있었던 혁명과 그 실패에서 비롯된 환멸은 유럽 지식인들의 의식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발달을 계속해 온 기계·기술 중심의 단일 대량생산 체제가 인간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변화하였고, 소비 형태에 있어서도 획일적이던 것이 개성적·탈규격화의 소비로 변화하였으며, 여권운동이나 동성연애운동 등 그동안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주의의 권위와 엄격한 기성 전통과 인습의 그늘 밑에 억압된 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던 세력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도 그동안 타자(他者)로서 억압받아 온 주변부 문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자신(自信)의 향상과 더불어 실재적 욕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전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역사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세대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주며, 대중문화와 상류문화의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과 기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정보매체의 발달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TV나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아마 탄생될 수 없었다고 할 만큼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생성되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몫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주의의 절대권력과 유대인의 대량학살 및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의 원자탄 투하 등의 여러가지 사건들 또한 인간성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증폭시켰고, 서구인들은 인간의 주체와 자아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으며<sup>6)</sup>, '주체의 해체(Deconstruction of Subject)'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로 이 시기는 기존의 가치체계가 너무 효력을 상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였다. 예술계에서도 양식적 특징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고,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며,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sup>7)</sup>을 보이면서 예술의 관념 그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더니즘의 한계와 그 쇠퇴가 두드러짐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절대성 보다는 상대성을, 일원론 보다는 다원론을, 그리고 독단주의 보다는 관용주의를 한결 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sup>8)</sup>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대중 소비사회로 변화된 새로운 질서를 다각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며, 이 새로운 질서에 편승하는 예술적 현상을 칭하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20세기 중엽 이후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사조나 경향을 기술하는 개념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나 세계관, 그리고 더 나아가

4) 서성복,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1989, p. 5.

5) 김옥동, *op. cit.*, 1992, pp. 29-30.

6)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1994, p. 15.

7) 박명희, 돌풍 포스트모더니즘, 동아일보사, 월간誌, 1992년 1월, p. 59.

8) 김옥동, *op. cit.*, 1992, p. 27.

9) 박재관, 포스트모더니즘 광고의 표현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2.

서는 서구 휴머니즘의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0)</sup>

### Ⅲ.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는 최소한 195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분야간, 용어 사용자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어가 유래한 의미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포스트(post)와 모더니즘(modernism)의 합성어로, 포스트(post)는 '다음의', '새로운'이란 뜻을 갖는 접두어로 직역하면 '모던 이후의', '다음의 모던'이라는 의미이며, '탈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라고 쓸 수 있으나 굳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단절과 지속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모더니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모더니즘과의 공통점 및 변별적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공통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본질적인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과의 단절, 불확정성, 파편화, 비제시성과 비재현성 그리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 등에 있어 모더니즘과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 이런 특성들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같은 특성들에 대해 모더니즘보다 한결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1)</sup>

##### 1) 전통과의 단절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기

존의 전통과 인습에의 도전을 이론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이제까지 서구 세계를 지배해 온 휴머니즘 전통을 비판함으로써 변혁과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 두 이론이 '대항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모더니즘의 경우 이런 전통에의 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대항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전통으로 변질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어쨌든,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은 무엇보다도 전통에의 단절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2) 비결정성, 불확실성

비결정성, 불확실성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두 전통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철학적 기초에 해당된다. 핫산<sup>12)</sup>은 이점과 관련하여 "비결정성은 우리의 행동과 신념, 그리고 해석 행위에 침윤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이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용어로 요약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비결정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다원성과 상대성의 문제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특징적으로 일원론이나 절대성을 배격하고 보다 다원적인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파편화, 편린화 현상

파편화, 편린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결정성, 불확실성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특징적으로 결합보다는 단절, 질서보다는 혼돈, 그리고 총체성이나 종합보다는 해체나 분해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파편화나 편린화는 콜라주(collage)의 기법을 통해 잘 나타난다.

10) 김옥동, *op. cit.*, 1992, p. 59.

11)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0, pp. 422-423.

12) Ihab Hassan, *The Postmodern Tur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 168.

#### 4) 비제시성(非提示性)과 비재현성(非再現性)

이는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어 신고전주의와 리얼리즘에서 극한점에 달한 모방이론에 대한 도전을 말한다. 모방이론에 의하면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자연이나 우주 혹은 삶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반(反)리얼리즘은 이 두 이론을 서로 결합시켜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룬타르<sup>13)</sup>는 비제시성과 비재현성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모더니즘의 경우보다 한결 더 첨예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제시하는 것, 훌륭한 형식의 위로와 성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향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향의 일치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새로운 제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아이러니(Irony)와 패러독스(Paradox)

본질적으로 비결정성이나 불확정성에서 야기되는 결과인 아이러니는 의견과 실재, 기대와 결과 등의 불일치를 통해 고정불변한 의미나 의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으로써 어느 한 중심이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물론 모더니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두 전통이나 이론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모더니즘의 경우 아이러니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인간 경험을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모더니즘의 특징적 형태인 분리적 아이러니는 일종의 패러독스 상태를 지향하는데, 패러독스는 본질상 이율배반적이거나 양립할 수 없는 두 요

소의 조화이다.<sup>14)</sup>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단절되고 파편화된 세계가 취급되기 일수이며, 극단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절대적 아이러니는 이런 단속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 2.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차별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와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 패러디(parody)와 파스티쉬(pastiche), 주변적인 것의 부상, 그리고 탈장르화와 장르확산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과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sup>15)</sup>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정전화(脫正典化) 혹은 탈중심화(脫中心化) 현상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특징들은 모두 이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1) 자아나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

자아나 주관성의 문제는 서구 휴머니즘 전통의 근간을 이루어온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모더니즘은 자아와 주관성,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였으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자아의 중요성이나 총체성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아의 분산이나 자아의 상실 문제를 더욱 중요시 하였다.

### 2) 패러디(Parody)와 파스티쉬(Pastiche)

포스트모더니즘은 패러디나 파스티쉬를 매우 핵심적인 예술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 특징 역시 자아의 분산이나 상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정전화나 탈중심화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패러디는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둔 모방인데, 모방하는 사교나 구절의 전환을 통해 우스꽝스런 효과를 산출하는 양식<sup>16)</sup> 을 말하며, 양

13) Jean-Francois Lyotard, "Answering the question : What is Postmodernism?". In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1984, p. 81.

14) Napier, A. D., *Masks, Transformation and Parado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1.

15) 김옥동, *op. cit.*, 1992, p. 433.

16) Linda Hutcheon, 김상구 · 윤여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p. 55.

식의 중복성·절충주의를 뜻하지만 이미 사용된 양식의 부분인용 또는 하나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오면서 그 내용을 바꾸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패러디는 모더니즘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과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더니즘의 경우 패러디는 암시적이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는 보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보다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 패러디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 그것은 보다 긍정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그의 논문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1984)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의 패러디를 구별하기 위해 '파스티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혼성모방을 뜻하는 용어로,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잡다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파스티쉬는 패러디와 비교하여 한결 풍자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해학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렇게 패러디나 파스티쉬를 중요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의 경우는 작품의 소개가 고갈되거나 소진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린다 허천(Linda Hutcheon)<sup>17)</sup>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디나 파스티쉬를 단순히 모방이나 재 활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아테올로기의 맥락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이런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모더니스트들이 도외시해 온 역사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주변적인 것의 부상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프로이트(Freud)가 말하는 이른바 '억압된 것의 복귀'가 핵심

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무시되거나 도외시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소수 민족의 부상에서 잘 나타나며, 196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청년문화의 대두 역시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년문화의 경우 그것은 일종의 하부문화로서 그 동안 지배적인 문화로 군림해 온 전통적인 기성문화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청년문화가 전통 문화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대중문화는 바로 고급문화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 모더니즘 문화는 다분히 고답적이고 귀족적이며 엘리트적인 문화였다. 그것은 특징적으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하여 많은 혐오감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은 오히려 소수인의 지식인들과 애호가들을 중심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모더니즘의 고급문화는 보다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적인 것의 복귀 현상이 무엇보다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性)의 해방에서이다. 이런 성의 해방 현상이 가장 명시적으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난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페미니즘 운동이나 페미니즘 문학이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모더니즘은 남성 중심주의에 기초한 이론으로 여성들은 주변적인 위치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탈장르화와 장르 확산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장르화나 장르 확산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모더니즘의 경우 예술장르는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이런 장르 사이에 놓여 있던 높은 장벽이 무너지고 각각의 장르가 서로 혼합되고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장르를 다른 장르와 서로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17) Linda Hutcheon, *A Poetics of Postmodernism: History · Theory · Fiction*, Routledge, 1988, pp. 24-25.

범주와 장르를 혼합하는 것은 1970년대에 모든 예술분야에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이 되었으며, 이런 절충주의는 고급예술, 고상한 취미,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같은 안정된 범주에 대한 개념에 도전을 가져왔다.<sup>18)</sup>

이상에서 살펴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을 분류·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 전통과의 단절, 비제시성과 비재현성에 대한 회의적 고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테마로 각 분야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적·전통적 형식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묶어 '역사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역사성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패러디와 파스티슈가 사용되고 있다.
-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 비결정성과 불확실성, 파편화 현상, 아이러니와 패러독스, 주변적인 것의 부상 등은 일원론이나 절대성을 배격하고 보다 다원적인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다원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특성인 탈장르화와 장르확산은 장르의식이 붕괴되고 혼합되는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절충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IV.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 1. 역사성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추상적 경향에 의해 결여되었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를 참조하고 이들을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주의'로서, 복식에서는 주로 '복고적 경향'으로서 그 새로운 시도를 표현하였다. 복식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

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1980년대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식 표현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sup>19)</sup> 이외에 '장식적 경향'도 여성미의 강조라든가, 역사적 장식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 1) 복고적 경향

포스트모더니즘의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때 복고의 유형은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며 '과거성'을 이미지 차용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sup>20)</sup> 여기에서 어떠한 차용은 주로 패러디(parody)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은 충격을 증감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식에 영향을 미쳤던 초기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복고적 경향은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복식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한 과도기로서, 과거의 것들이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발상의 디자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대중화는 되지 않은 시기로 전체적으로 다소 융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고 다양한 연출들을 시도하였는데 고대로부터 심지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기의 유형들을 수용함으로써(그림 1~8) 복고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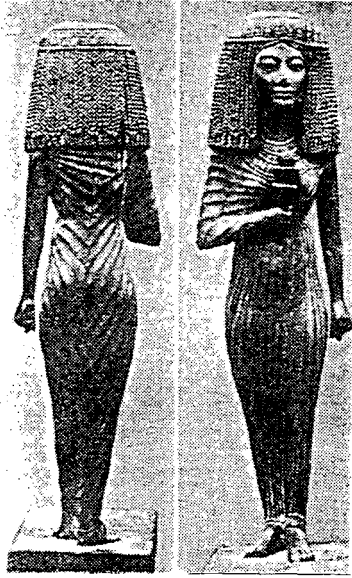
그리고 1990년대는 과거 이미지의 재조합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유형의 파편들간의 조화를 표현하는데 있어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오늘날 인간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는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복식에 있어서 과거의 것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표현

18) Charles Jencks,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1992, p. 21.

19) 정홍숙,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服飾 제 25호, 1995, p. 75.

20) 김보현, 신빙아 공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한신문화사, 1992, p. 257.



<그림 1> 고대 Egypt의 Kalasiris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p. 61)



<그림 2> 복고적 경향(과거이미지의 재조합)  
(Thierry Mugler, *Fashion News* '94 S/S, p. 32)

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sup>21)</sup>

<그림 2>는 고대 이집트의 복식인 칼라사리스 <그림 1>의 가슴을 향해 모아지는 주름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림 4>는 고대 로마의 토가 <그림 3>를 응용한 것으로 고대 의복 스타일의 이미지를 재조합한 것이다.

<그림 6>은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특징적 요소인 슬래쉬 <그림 5>를 motif로 한 것이며, <그림 8>은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 장식 요소인 loop와 tassel (그림 7)을 패러디화의 과정을 통해 현대 복식에 도입한 것으로 근세 의복 스타일의 이미지를 수용한 것이다.

## 2) 장식적 경향

20세기에 들어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현대생활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현대적 환경에 기초하여 인간의 가치체계와 행동구

조 역시 큰 변혁을 맞게 되었는데<sup>22)</sup>, 인간생활에 있어 더욱 더 합리와 이성을 중시하고 단순성, 기능성, 실용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 그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여서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인체의 왜곡과 과장,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게 되었으며, 기능과 실용성에 역점을 두어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성을 강조하여 복식에서도 모더니즘을 반영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던함과 심플함의 확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감성으로 다시 장식에 몰입·매료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식을 누락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장식성은 역사적 장식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21) 정홍숙, *op. cit.*, p. 75.

22) 홍낙물, 산업화와 현대사회, 현대사회론 (고영복 편저), 사회문화연구소, 1994, p. 69.





<그림 3> 고대 Roma의 Toga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p. 61)



<그림 4> 복고적 경향(과거이미지의 재조합)  
(Romeo Gigli, *Fashion News '94 S/S*, p. 38)



<그림 5> Renaissance시대의 Slash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p. 76)



<그림 6> 복고적 경향(과거이미지의 재조합)  
(Jil Sander, *Collections I '93 '94 A/W*, p. 26)



<그림 7> Baroque시대의 Loop와 Tassel  
(Francois Boucher, 石山彰,  
西洋服装史, p. 259)



<그림 8> 복고적 경향(과거이미지의 재조합)  
(Fendi, Collections I '93  
'94 A/W, p. 169)

## 2. 다원성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은 모든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복식에서는 에콜로지·Street Fashion·미래주의 등 다양한 의복 스타일이 혼재하는 경향, 장르의 붕괴와 혼합·앗쟁블라주의 영향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화 및 재질감 강조의 경향, 그리고 기존의 전통질서와 상반되는 표현인 용도의 변용과 전위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

#### (1) 에콜로지(Ecology)

현대는 물질적 풍요와 문화의 즐거움이 풍만한 사회가 되었지만, 인간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징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예술·문화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정신적 풍요의 가치를 부여해온 무형의 가치들-사회의 일체감,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 자연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는 곧 '자연주의'의 반영으로 나타난다.<sup>23)</sup>

에콜로지는 생태학을 뜻하는 용어로서 오염되어 가는 지구 환경을 보존, 훼손되지 않은 자연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인들의 바람을 통하여 강한 메시지로 만들어낸 것이다.<sup>24)</sup>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의 영향으로 자연물을 복식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자연을 복식으로 이동한 것은 모든 종류의 자연 즉, 해양생물, 나무, 새, 꽃, 나비 등을 의상에 표현하는 것이다(그림 9).

에콜로지는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기본능, 인간성 회복이라는 메시지와 에콜로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으며<sup>25)</sup> 이러한 에콜로지의 경향은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23)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50.

24) 양윤정, *op. cit.*, p. 51.

25)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54.



<그림 9> 에콜로지(Ecology)  
 (Trafico de modas, *Fashion News*  
 '92 S/S, p.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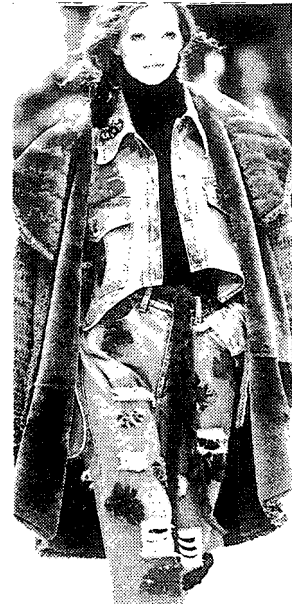
찾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라 생각 된다.

**(2) Street Fashion**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가치체계에 대해 반발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에게 탐구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소외된 계층(여성, 청소년, 흑인)들은 그들의 가치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사회도 이들의 담론에 귀기울이게 되었다. 26)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입장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를 비롯한 하위문화가 부상하였고, 그로 인해 1990년대에는 하위권의 거리패션(street fashion) (그림 10)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었다.

**(3) 미래주의**

현대복식에서의 미래주의적 경향은 포스트모



<그림 10> Street Fashion  
 (Anna Sui, *Fashion News*  
 '96 '97 A/W, p. 151)

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새로운 technology의 발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전에는 의복의 소재로서 수용되지 않았던 부직포, 비닐, 금속, 플라스틱 등의 소재와 색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그림 11).<sup>27)</sup>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의복 스타일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며, 과장된 표현을 통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자연스럽게 못하고 비일상적 이미지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sup>28)</sup>

**2) 용도의 변용과 전위**

복식에 있어서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방법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복식에서 보여지는 용도 변경에 의한 변용과 전위의 대표적인 경우로 속옷이 겉옷으로 대체되는 것을 들 수 있다(그림 12).

19세기에는 속옷의 경박한 모습은 유희와 유희

26) 정홍숙, *op. cit.* p. 72.

27) 이주현,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996, p. 187.

28) 가계창, 패션디자인발상스트레이닝 3, 도서출판 정은, 1993, pp. 6-15.



<그림 11> 미래주의  
(Thierry Mugler, *Fashion News*  
'94 S/S, p. 32)

의 표본으로 비쳤으나, 이미 이때부터 속옷이 걸 옷화되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의식적인 발전의 모습이 보였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그 애매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서히 걸옷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란제리 의상은 여성들만이 갖는 관능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킨 모드로, 빅토리아 시대의 캐춘부들은 모닝드레스, 티가운, 실내복 등을 외의(外衣)로써 전위시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란제리 룩을 통해 현대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노출의 의미는 곧 비정숙성을 의미하는 퇴폐미로 간주된다. 또한 퇴폐미는 기존의 전통미와는 상반되는 추의 개념의 아름다움인 것으로서<sup>29)</sup>, 기존의 걸서로부터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용도의 변용과 전위  
(Paco Rabanne, *Fashion News*  
'95 S/S, p. 94)

이 외에도 복식에서 기존의 전통걸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서 다테일의 장식을 전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고, 엉뚱한 소재를 복식의 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표현하는 양식은 이러한 용도의 변용과 전위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소재의 다양화와 재질감 강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 장르구분이 붕괴되어 탈장르화되어 나타난 오브제(object)와 앳쌍블라쥬(asssemblage)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앳쌍블라쥬는 '집합. 끊어 모으다'란 뜻을 갖는 용어로서, 이미 있었던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끊어 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화 분야에 있어 평면적 표현감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복식에서는 소재의 다양화와 재질감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sup>30)</sup>

29) 채금석, 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服飾* 제 24호, 1995, p. 131.

30) 이주현, *op. cit.*, p. 187.

**3. 절충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성'은 탈이원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복식에서는 절충된 의복 스타일로 표현되는데, 동·서양 문화의 접목으로 인한 이국적 경향,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합되는 양상인 양성적 경향, 그리고 절충주의 양식에 의한 폴리주 기법의 영향으로 여러 소재가 혼용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이국적 경향**

현대복식에 나타난 이국적 경향은 서양 중심의 현대복식에 비서양 지역의 '민속의상' 또는 '민족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속의상은 그 지역이나 민족 고유의 풍습, 풍속, 모양, 소재, 기술 등을 반영한 것으로,

1990년대의 이국적 경향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이국적 경향 (그림 13)은 동·서양의 문화가 접목되고 혼합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며, 외면 당한 인간의 감상적인 측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2) 양성적(Androgyny) 경향**

사회적인 차별과 극단적인 계급차 그리고 성차의 편견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은 여성 복식 근대화의 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남녀 공통의 의복은 여성에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을 약간씩 달리하여 나타나지만, 1990년대에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에서 영향을 받



<그림 13> 이국적 경향  
(Clove vs Cloves, Gap  
'90 S/S, Tokyo-10)



<그림 14> 양성적 경향  
(Anne Klein, Fashion News  
'96 '97 A/W, p. 153)

31) 송명진, 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服飾 제 18 호, 1992, pp. 294-295.



**<그림 15>** 여러소재의 혼용  
(Milk /Milk Boy /O.D.O.B,  
Gap '90 S/S)

은 탈이원논리의 영향으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합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그림 14).

### 3) 여러 소재의 혼용

이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소재들을 한 의상에 조합시켜 혼용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양식에 의한 콜라주(Collage) 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sup>32)</sup>

현대복식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콜라주 기법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소재들을 조합시키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직물 이외에 이질적인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여 의상을 제작하거나 장식하는 것으로(그림 15), 이러한 표현은 의외성과 유희성을 갖게 하며, 무질서의 측면을 보여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 V. 결 론

20세기 후반의 시대사조라 일컬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날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70년대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정통 Haute Couture style의 High fashion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sports wear, casual로 대변되던 두 흐름이 다종다양하며 마이컴 기술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한 새로운 생산방식, 개성의 존중과 다양화, 문화 전반에 걸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는 인터넷과 같은 획기적인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정보와 고속화로 이러한 경향이 대중에게 더 크게 확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복식에서의 특성과 관련시켜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되는 양식을 살펴보았다. 이상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은 모더니즘에 의해 결여되었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참조하여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복식에서는 복고적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장식적 경향도 역사적 장식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은 일원론이나 질대성을 배격하고 보다 다원적인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복식에서는 에콜로지·Street Fashion·미래주의 등 다양한 의복 스타일이 혼재하는 경향, 기존의 전통질서와 상반되는 표현인 용도의 변용과 전위의 경향, 장르의 붕괴와 혼합·엇쌍블라주의 영향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화 및 재질감 강조의 경

32) 이주현, *op. cit.*, p. 189.

33) 채금석, 양숙희, *op. cit.*, p. 136.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성'은 장르의 붕괴와 혼합, 탈이원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절충된 의복 스타일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복식에서 동·서양 문화의 접목으로 인한 이국적 경향,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합되는 양상인 양성적 경향, 그리고 절충주의 양식에 의한 플라주 기법의 영향으로 여러 소재가 혼용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의 문화·예술분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이론을 복식과 관련시켜 고찰해봄으로써, 시대의지를 반영한 복식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현대 복식에 표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원리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가재창,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3, 도서출판 정은, 1993.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1992.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1994.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박명희, 돌풍 포스트모더니즘, 동아일보사, 월간 밋, 1992년 1월.
- 박재관, 포스트모더니즘 광고의 표현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서성록,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미술공론사, 1989.
- 송병진, 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服飾 제 18호, 1992.
- 신혜영,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유행패션의 형성에 대한 연구, 服飾 제 27호, 1996.
-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주현,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996.
- 정성혜, 일본패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服飾 제 25호, 1995.
-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혜선, 패션에 미친 팝아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홍숙,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服飾 제 25호, 1995.
- 주명희,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1992.
- 채금석, 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服飾 제 24호, 1995.
- 홍덕률, 산업화와 현대사회, 현대사회론 (고영복 편저), 사회문화연구소, 1994.
-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Dover Pub., 1963.
- Charles Jencks,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1992.
- Francois Boucher, 石山彰, 西洋服装史, 東京 : 文化出版局, 1965.
- Ihab Hassan, 정정호 편역, 포스트모더니즘, 종로서적, 1985.
- Ihab Hassan, *The Postmodern Tur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 a concise History*, London : Thames and Hudson Ltd., 1986.
- Jean-Francois Lyotard, "Answering the question : What is Postmodernism?", In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Linda Hutcheon, 김상구, 윤여복(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 Linda Hutcheon, *A Poetics of Postmodernism : History · Theory · Fiction*, Routledge, 1988.
- Napier, A.D., *Masks, Transformation and*

- Parado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30. 「Fashion News」 '96 '97 A/W Paris, Milan Collections.
31. 「Fashion News」 '96 '97 A/W Tokyo, New-York, London Collections.
32. 「Fashion News」 '95 S/S Paris, Milan Collections.
33. 「Fashion News」 '94 S/S Paris, Milan Collections.
34. 「Collections I」 '93 '94 A/W.
35. 「Fashion News」 '92 S/S London, Tokyo New York Collections.
36. 「Fashion News」 '92 S/S Paris, Milan Madrid Collection.
37. 「Gap」 '90 S/S Tokyo, NewYork.